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개헌론이 시민사회는 물론 여야를 넘나든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운영 시스템 대개조, 대통령 권한 축소와 결선투표제의 4년 중임, 그리고 내각제 또는 의원집중제 등이.

개헌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제안과 함께 조기대선 전 개헌 주장도 나온다. 개헌의 지와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 논의가 지난 40년 가까이 공전한 이유다.

제헌헌법은 45일, 제2공화국 헌법은 공포까지 50일 걸렸다. 1987년 헌법도 여야 8인 정치회담부터 헌법공포까지 2개월 26일이었다. 주호영 국회의장이 "개헌은 의지문제도 야당이 협조하면 한 달 내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조기대선 전이든 내년이든 이재명 대표의 동나 목인 없는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헌을 포함한 정치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김부겸 전 총리에게 이 대표는 "지금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이 대표에게 개헌을 촉구하려고 전화를 하면 요즘은 피한다든 정대철 헌정회장의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조기대선에서 개헌론은 당 밖의 반명과 당내 비명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국민적 공감과 정치적 파괴력에 따라서 이재명의 선택도 변한다. 그가 치유와 회복 그리고 공화국의 전진을 향한 전환기적 리더십의 시대 정신을 이해하느냐 나아가 대의에 충실 하느냐가 갈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과 '이재명의 민주당'

길이다. 개헌론의 방향은 분명하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줄이면서 권력의 균형과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통령 권력의 제한과 분산은 국회의 권한과 기능의 확대다.

예산법률주의를 통한 국회의 예산심의와 통제권 강화 그리고 대통령 인사권 축소와 함께 헌법재판소장과 감사위원의 국회 선출 등이다. 감사원의 국회기관도 그 중 하나로 그 끝은 의회중심의 국정운영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의 권한과 기능 확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립과 교착의 정치와 국가 리더십의 기능 부진을 해결할까?

계엄과 탄핵 후의 정치는 민폐가 되었다.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의 악순환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지목한 출판핵과 예산삭감 등은 정치와 리더십 실패의 결과다. 제왕적 대통령과 여소야대 제왕적 야당대표의 극단적 충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대통령과 입법 권력의 투쟁과 대치의 위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개헌이든 정치개혁이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분명하다. 유능한 민주적 정치 리더십이 선도하는 문제해결의 정치다. 국민 삶과 생활에 도움 되는 정치다.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과 협치 나아가 공치(共治)를 지향했다.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준의 국무총리제와 의원의 장관 겸직 등의 제도적 장치다. 내각제적 대통령제라고 불리고 기존 제도와 관행의 계승과 심화로 책임총리제를 고민한다.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의 협조와 협력의 협치가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만들어야 한다. 제왕적 야당대표의 국회가 등장하지 않도록 제도적 강제 장치의 마련이다.

5년 임기의 대통령과 4년 주기의 총선은 여소야대의

가능성을 높인다. 차기 대선을 향한 1극 체제의 여의도 대통령 행보는 결국 제왕적 야당 대표와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다. 국회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다.

제왕적 국회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승자독식 구조에 따른 거대 정당의 의석 과점에서 출발한다. 현행 제도는 지역주의와 양당체제 고착화의 주범이다. 대량 사표 발생과 비례성과 대표성의 악화가 불가피 하다. 작년 총선에서 지역구 투표의 41.5%인 1213만 6757표가 사표였다.

개헌으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더 강화된다면 그 전제는 국민 대표의 국회 구성이어야 하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이다. 양극화 정치의 악화를 막아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피할 수 있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개헌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대표성 강화 없이 대통령 권한만 이양하면 뒤물린 권력구조가 발생한다"는 게 노회찬의 지적이다. 그는 "국회의 정당 득표율·의석수 일치를 달성해야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보다 어렵다. 더 많은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변동시킨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을 잡는 것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더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며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믿었던 이유다.

제왕적 국회의 등장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다. 임기조정을 통한 동시선거로 여대야소이거나 동농복합선거제를 통한 다당제 국화다. 특히 후자는 양당의 주류세력인 민주당 수도권과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에게 불리하다. 이재명 대표와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출발점이다. 절대 다수당이기에 때문이다. 그들의 선의와 공적 마인드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일까?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동료 목사로부터 매우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역을 하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 사이인지라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 김창열 선교사님은 "전 국토가 불모지나 다름없는 그 땅을 보고 농촌을 살리고 그 나라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도 가슴이 뚫다"고 말하며 그곳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나타냈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삶을 버리고 장인 목사님의 그 뜻을 받들어 어디든 함께 다니며 노력하던 사위가 바로 이리온 선교사이다. 2월 21일 밤, 폐강도 7명이 교회 문을 부수고 들어와 염총과 총기로 피습을 하고 현지 사역비용 3백만 아리(한화 90만원)를 갈취하고 달아났다. 사건이 발생한 후 두 선교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한다.

두 명의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순서노회에서 파송 받았다. 김 선교사는 은퇴 후 아프리카 침술 봉사와 농업선교를 하기 위해 2년 전 마다가스

마다가스카르에서 전해 온 슬픈 소식

카르로 떠났고 사위 이 선교사는 지난해 합류했다. 김 선교사는 교회 뒷밭을 주민들에게 빌려주고 그곳에 바닐라 나무 등 유실수 묘목을 심는 사역을 펼쳤다. 주민들은 나무 열매로 발생한 수입을 얻어 삶을 꾸렸다. 이 선교사는 마다가스카르 농촌을 살린다는 비전으로 현지 선교단체, 중개자와 소통하며 농촌개발 사역을 기획하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또 우물 파기와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 현지에 복음을 전했다.

광주에서 개신교의 역사는 1904년 유진 벨, 오엔 선교사 등이 앙림동에 자리 잡으면서 시작했다. 미국 남장로교가 당초 선교 기지를 삼으려 했던 곳은 광주가 아닌 나주였다고 한다. 그러나 나주는 유생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한다. 그래서 광주로 옮겨온 선교사들이 자리 잡은 곳이 앙림동이었다. 시 외곽이었던 앙림동 언덕은 고려시대부터 시신을 버리던 풍장(風葬)터였다고 한다. 버려진 땅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땅이었던 셈이다. 선교사들은 이런 죽음의 땅에 선교 기지를 세워 복음을 전파하고 병원과 학교를 설립해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사역을 시작했다. 1904년 12월 25일 성탄절, 이곳 유진 벨의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광주·전남 지역 선교사역이 시작했다.

서서평(엘리자베스 세팡·1880~1934)은 '한국 간호학계의 어머니'다. 1912년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온 그는 광주 제중병원 간호원장으로 일하며 고아와 한센인을 돌봤는데, 양말로 거둔 고아가 13명에 이르렀다. 1934년 그가 별세했을 때 수중엔 현금 7천, 강병이 가

루 2층이 전부였다고 한다. 20여명의 선교사가 잠들어 있는 앙림동 선교사 묘원에는 '영혼까지 웃게 하라'는 글귀가 새겨진 묘비가 있다. 그리고 조선에서 선교사들의 목표는 '조선의 짐을 들어주고, 조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라고 뚜렷이 새겨져 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려졌으며 약한 이들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려졌으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방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한다.

이러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던 두 분의 순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며 슬프지만 그들의 사랑의 수고는 결코 잊혀 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누군가 그들의 뒤를 이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 본토인들이 자력갱생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 나라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리며 열매 맺기까지 그리고 후손 대대로 이들의 죽음이 기억되고 또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고



이광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보약 한 첩보다 아침식사'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한 동안 바쁘다며 과일·과식을 핑계로 아침식사를 건너뛰거나 간단한 과일로 때우곤 했다. 하지만 지난해 '농협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생활화하면서 잠시 소홀했었던 아침밥을 집, 회사에서 꼭꼭 하루 챙겨 먹고 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먹을수록 익숙해졌다. 이제는 오히려 먹지 않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진다. 업무상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지금, 아침식사를 반드시 먹고 있다.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3년 아침식사 결실률은 6~11세 16.6%, 12~18세 45.5%, 19~29세 57.2%, 30~49세 41.3%, 50~64세 20.8%, 65세 이상 6.3%이다. 10년 전인 2013년은 각각 11.4%, 33.1%, 40.1%, 27.7%, 13.2%, 5.9%였다. 전 연령층에서 결실률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의 식습관이 나이가 들수록 그대로 옮겨가고 있는

아침밥 먹는 청소년, 성적도 좋다

데 과연 대한민국에 좋은 일인지 궁금이 살펴 볼 때다. 동국대 가정의학과 이상우 교수 연구팀은 정보영양학회 학술대회에서 국내 청소년 아침 결식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다. 아침식사를 자주 거를수록 체질량지수(BMI)와 허리둘레 수치가 높게 나왔으며 비만 유행률도 아침 결식 빈도수가 잦을수록 증가했다.

혈압 역시 높게 나타나 성인이 되었을 때 고혈압으로 발전할 위험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또 결식이 잦은 집단에서 총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인슐린 저항수치가 높아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크다. 이는 아침식사를 거르는 식습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아침식사는 청소년들의 건강 뿐만 아니라 성적에도 다분히 영향을 미친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공공보건과 연구전망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와 수능 성적 및 내신등급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침식사를 할수록 수능 성적이 높았으며 내신 등급도 아침식사 횟수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북대와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다. 아침을 매일 먹는 학생과 일주일에 하루라도 거르는 학생을 비교했는데 매일 먹는 학생의 3과목 평균 점수가 여학생은 8.5점, 남학생은 6.4점 높았다.

쌀의 주성분이 탄수화물이라 쌀이 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서 정혜희 호서대 식

품영양학과 교수는 오히려 쌀밥 중심의 균형 잡힌 식습관이 탄수화물 중독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뇌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주기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쌀밥을 섭취해 공복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 단 것을 찾게 되고, 더 강한 탄수화물을 찾게 되어 결국 탄수화물 중독증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다. 아침을 걸러 자꾸 단 것을 찾는 행동은 누구나 경험하는 모습이다.

쌀밥 한 공기에는 비타민 B1, B2가 풍부하고 다이어트에 도움 되는 칼슘과 철 등 미네랄과 소화를 돕는 섬유질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좋은 영양소가 포함된 열량이 고작 313kcal에 불과하다.

누구나 쌀밥을 먹고 나면 다른 음식에 비해 포만감을 느낀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이는 밥의 전분이 체내에서 서서히 소화되고 흡수되기 때문이다. 밥과 반찬을 번갈아 먹게 되어 혈당 상승을 억제시켜 식사량을 줄여 비만 예방에도 오히려 효과적이다.

문제는 영양소가 없이 열량만 내는 감자칩, 도너츠, 케이크와 같은 엠프티 칼로리(empty calorie) 식품으로 밥을 대체하거나 아침밥을 건너뛰어 과식하는 것이다. 아침 쌀밥 한 공기는 보약이다. 비싼 보약을 사서 챙겨먹는 것보다 쌀밥 한 그릇이 가성비도 높다. 농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침밥 먹기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한다. 자녀의 성적을 높일 수 있고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침밥 먹기 생활화에 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주길 희망한다.

社說

9년만의 출산율 반등 낙관하기엔 이르다

전국에서 9년만에 아기 울음 소리가 커졌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모두 오른 것인데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반등인지 추세적인 전환인지는 좀 더 지켜 보아야 한다. 워낙 오랜만에 듣는 희소식이라 들뜰수도 있지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23만8000여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가량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9년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광주와 전남은 희비가 엇갈렸다.

전남은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과 함께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8200여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반면 광주는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감소했고 감소 폭도 전국에서 가장 커 우려를 낳게 한다. 지난해 광주에서 태어난 신생아

는 6000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2.1% 줄었고 합계출산율도 0.70명으로 1년만에 0.8% 감소했다.

전남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다형스런 일로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정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목표로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태어난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 지급하는 출생아 분수당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우려하는 것은 광주의 출생아 수 감소와 낮은 합계출산율이 청년들의 유출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962명이 광주를 떠났는데 이 가운데 4037명이 20대였다는 사실이 청년 유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번 출산율 통계에서도 보듯 광주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지역사회가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저위험권총 등 비살상 총기 도입 시급하다

광주 도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용하는 안전 장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흉악 범죄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그제 새벽 광주 금남로 4가 인근 거리에서 50대 남성이 "수상한 남성이 잡가지 따라온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포한 실탄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역시 얼굴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찰의 총기 사용은 최고 단계인 '고위험 물리력'에 해당하는데 대상자가 '치명적 공격'을 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에 매우 급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

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치로 정당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참에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은 물론 권총과 같은 총기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범인을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저위험권총 등 비살상 총기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 경찰 중에 저위험권총을 보급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데 경찰청은 올해 서울 지역에만 시범 보급하고 다른 지역에는 아직 한 정도 보급하지 않고 있다.

돌발상황이 많은 경찰 업무 특성상 인력 문제나 부작용 우려 없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관에게 '판단 잘 하라' 식으로 낯설 것이 아니라 비상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저위험권총 등 장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하길 바란다.

無等鼓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미국 어버인에 이어 일본 오기나와에서 2025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

올 시즌 KIA는 '1강'으로 꼽힌다. 지난 시즌 우승 전력의 큰 틀이 유지됐다. '에이스' 제임스 내일을 지켰고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내야수 패트릭 워즈넬과 투수 아담 윌러로 새 외국인 선수진을 구성했다. 필승조 장현식이 FA로 이탈했지만 트레이드를 통해 키움 마무리 출신의 조상우를 영입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도 있다. 우승 시즌을 보내면서 선수들은 귀한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경쟁'이라는 막강한 무기도 생겼다.

우승팀에서 쫓기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경험한 이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뜨거운 겨울을 보냈고, 관람객으로 팀의 우승을 지켜봐 왔던 이들은 1군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칼을 갈았다. 어느 해보다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면서 선수들은 알아서 몸을 만들어왔다. 코치들이 "당장 개막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경쟁 효과는 특별했다.

전력을 유지한 KIA는 '절대 강자'로

잡게 만든 경쟁.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쟁은 KIA의 우승 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취약점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이 KIA의 독주를 예상하면서 "부상이 없다면"이라는 단서를 단다. 모든 구단은 매년 부상과 싸움을 한다. 예상치 못한 부상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부상엔 팀 전력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가지 이유에서 부상이 발생한다.

많은 부상 원인 중 하나가 오버페이스다. 넘치는 승부욕에 또는 주어진 기회가

너무나도 간절해서 오버페이스를 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회는

줄어든다. 그만큼 간절함으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자리를 뺏기면 다시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조급해지는 이도 있을 것이다. 간절함과 조급함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쟁이 올 시즌 KIA의 가장 막강하면 서도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게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없다. 경쟁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결승선은 달라질 것이다. 인생도 그렇다.

/김여울 체육부 차장 wool@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 disclaime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